

**** 서울역사박물관 관람동선 개선을 위한 관람행태와 전시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Behavior of Appreciation and the Exhibition Space
for Improvement of Visitor's Movement in Seoul Museum of History

임채진* / Lim, Che-Zinn
박무호** / Park, Moo-Ho
정성욱*** / Jung, Sung-Wook

Abstract

The first object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ewly demanded service to the visitor in the museum. And the second is to consider the spatial configuration on the layout of exhibition and the shape of exhibition room from the view points of behavior of appreciation and other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exhibition content and structure of Seoul Museum of History formed by a story-line according to the theme of an each zone fixed sequence in an each exhibition that we are achieved. But the layout of exhibition and the shape of exhibition consist on the other hand of the freedom selection. So the problem appeared in the difference of the exhibition content and the layout of exhibition to the behavior of appreci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of exhibition spa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spatial configuration by the completed floor plan in order to satisfy the planning concepts.

키워드 : 박물관, 전시방식, 관람행태, 전시레이아웃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박물관에서 관람객의 전형적인 경험은 전시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작품 속을 관람객들이 '이동'하면서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시각적 접촉을 통해 감상하게 된다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¹⁾. 즉, 전시물 감성에 대한 선택과 그에 따른 지식의 습득은 '관람객이 전시공간을 움직여 나아갈 때에만'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경험적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관람객의 움직임이야말로 그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관람동선 및 행태 특성이 박물관 전시공간의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오고 있는 것이다.²⁾

이에 전시물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

는 박물관 전시공간³⁾에 대한 연구는 관람행태에 대한 예측이 설계의 중요 지표로 작용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시물과 공간의 배열 문제라는 입장에서 이를 건축유형에 적용하여 제기하거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형태적 측면에 대하여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람순서 및 순로 구성방식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주로 전시물과 관람객의 교류유형을 건축적 순환방식에서 모색, 이를 공간구조의 범주에서 분석하여 전시공간의 구성 및 배치에 주된 관심을 두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의 유형은 20세기에 들어 역사계, 민속계, 자연사계, 이공과학계에서부터 각종의 기념관, 특수전문박물관 등

- 1)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 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1997, p2.
- 2) Levin, M.D, The Modern Museum, Temple or Showroom, Jerusalem: Dvir Publishing House, 1983.
Montaner. J & Oliveras. J, The Museum of the Last Generation, London: Academy Editions, 1986.
- 3) Jordanova. L, Objects of Knowledg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Museums, Vergo. P.(Ed), The New Museology, London, Reaktion Books, 1989, pp.22~40

* 이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디자인학 박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본 연구논문은 2002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르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전시디자인의 방법 또한 감상형, 군집형, 이해형, 참여형 등 그 접근의 형식 자체가 크게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동시에 최근에는 레프리카, 영상,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다중구조적 전시기법이 행하여지기도 한다. 또한 전시의 운영에 있어서, 상설전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 부분적인 전시교체를 행하고 있는 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이와 같은 현상은 관람객의 시지각적 공간배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 전시공간에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이 새로이 조합, 생성되어 건축공간의 구조체계와 위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되었던 관람객의 행태에도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전시(先展示), 후건축(後建築)이라는 계획상의 수순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하에 건설이 진행되어 건축과 전시의 공간구조적 불일치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박물관 전시공간의 경우 순회형식과 더불어 지엽적 동선, 시지각적 구성체계 그리고 이들이 전시시나리오 및 레이아웃과 적절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법과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하여 관람행태 및 동선패턴을 전시방식, 지시정보체계, 전시레이아웃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상호간의 분석을 통한 대안을 검토하여 전시공간의 계획단계에서 유용하게 시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박물관은 국내 다수의 역사계 박물관이 채택하고 있는 강제순환식 동선체계와 벽부형 쇼케이스에 의한 전시방식과 달리 자유선택형의 순회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아일랜드형의 쇼케이스가 주를 이루는 동시에 다양한 전시방식과 전시레이아웃에 의해 다각적인관람행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2002년 5월에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을 선정하였다.⁵⁾

본 연구에서는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을 대상으로 전시영역간 동선체계 및 각 전시영역별 지엽적 국부동선의 조사와 더불어 전시연출의 기본방향, 전시주제 및 내용구성과 그 흐름, 전시영역(zone)의 구성 및 전시방식 등 전시체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한편, 관람행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선추적조사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총 1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관람행태를 기록하였으며 예비조사⁶⁾를 거쳐 3차례의 본조사를 2002년 7월 13일~8월 11일, 30일간 실

4) 임재진·황미영, 전시디자인의 공간분화와 Remodeling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호, 1999. 12, pp.42-43.

5) 서울역사박물관은 지상1층에 기획전시실과 기증전시실이, 지상2층에는 학예연구실, 지상3층에는 상설전시실이 위치해 있다.

6) 예비조사는 2002년 7월 6일~9일에 시행하였다.

시하였다. 총 3차에 걸친 본조사는 1, 2차의 조사 결과로 얻어진 관람행태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기존시설에서 변경가능한 범위에서 관람동선개선을 위한 가설을 설정한 후 이에 기초한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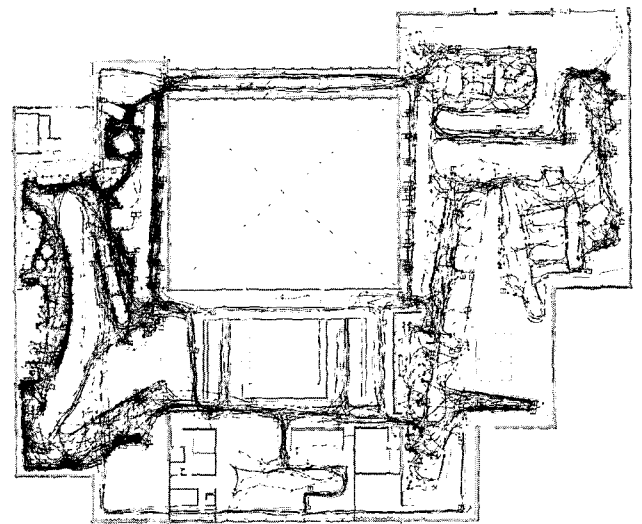
조사 방법은 Robinson과 Melton이 사용한 방법⁸⁾을 응용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추적조사(itinerary track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관찰자가 1인의 관람객을 선택하여 전시실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든 경로를 추적하여 60cm Grid 평면도 위에 그 궤적을 기록하여 전시공간에서의 이동형상, 동선패턴 및 통행량⁹⁾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로선택에 대한 관람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코드화하였으며,¹⁰⁾ 추적조사 후 설문조사 실시를 병행하였다.

2. 관람동선의 행태적 특성

2.1.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관람동선의 궤적을 오버랩(overlap)하여 전시영역에서 이동패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동형상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관람행동코드[■, ▲]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1차 동선추적조사에서 관람동선의 전체적인 형상은 보이드(void)를 중심으로 양 전시영역의 관람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우측에 위치해 있는 제3, 4전시영역의 경우 좌측의 제1, 2전시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람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림 1> 1차 추적조사에 의한 관람동선의 이동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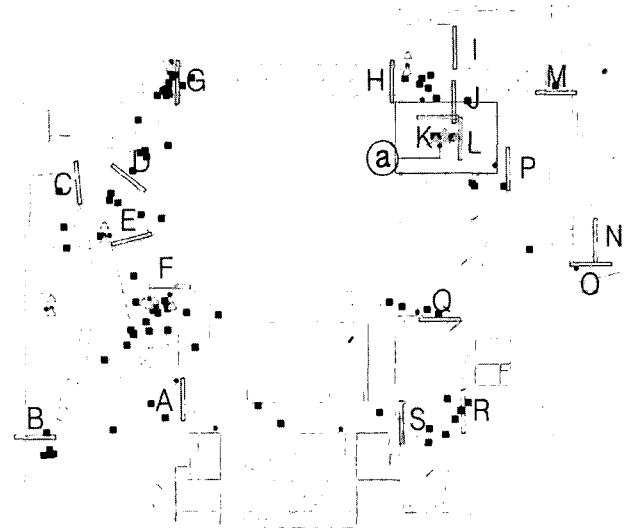
7) 본조사를 1~3차에 걸쳐 실시한 구체적 내용과 가설 및 개선책 등의 상세 내용 소개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8) 김용승, An Approach To Evaluating Exhibition Space in Art Gallies, 영국 바스대학 박론, 1994.

9) 본 연구에서 통행량이라는 용어는 관람객이 그 지점을 지나간 횟수를 의미하며 각 조사시기별인원인 40명을 넘을 수 있다.

10) 경로선택에 대한 관람행동의 관찰을 토대로 작성한 코드화의 구체적 내용은 2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구조의 문제, 관람피로(museum fatigue)¹¹⁾, 전시내용 및 구성상의 문제, 안내체계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동선추적조사시 병행하여 실시한 관람행동의 코드화를 통한 그 분포를 살펴보면 관람객들이 경로선택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방향안내판을 주시하여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미비함이 관찰되어 안내체계의 문제로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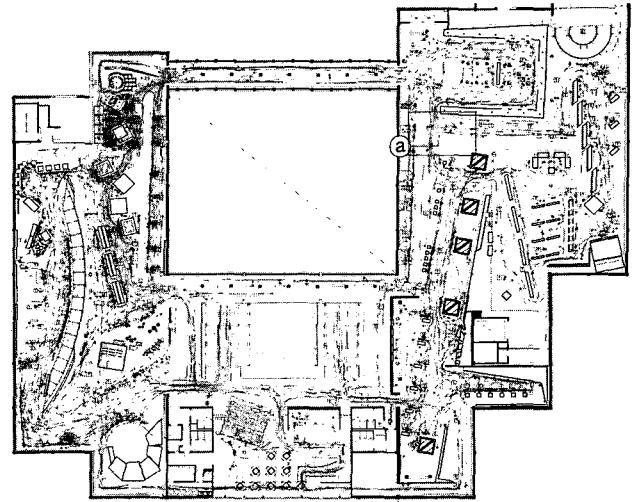
[기호범례] ■: 경로선택에 있어 혼란을 느낄 때의 관람행동 코드
▲: 지시정보를 볼 때의 관람행동 코드
●: 관람방향 안내판

<그림 2> 통행량 측정구간(A~S) 및 관람행동코드의 분포(1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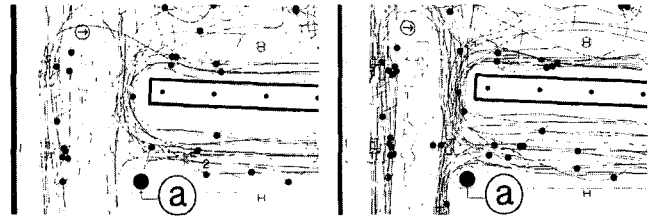
이는 관람 중 가장 불편했던 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이동경로가 복잡하여 관람순서 파악이 어려웠다' (42%)와 '전시실간 이동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혼란스러웠다' (54%)가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시공간구조상 경로선택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관람방향안내판을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조사결과에 착안하여 「관람방향안내판의 적절한 조정이 공간구조상 관람객의 경로선택시 발생하는 혼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2차 동선추적조사는 위의 가설에 기초하여 관람방향안내판의 제 역할이 관람객들에게 충분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행하고자 전시영역내 모든 관람방향안내판을 제거하고 1차 동선추적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결과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크게 상이한 동선패턴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박물관 피로는 보행거리 혹은 보행수준 등에 의한 신체적 피로보다 심리화상상태에 의한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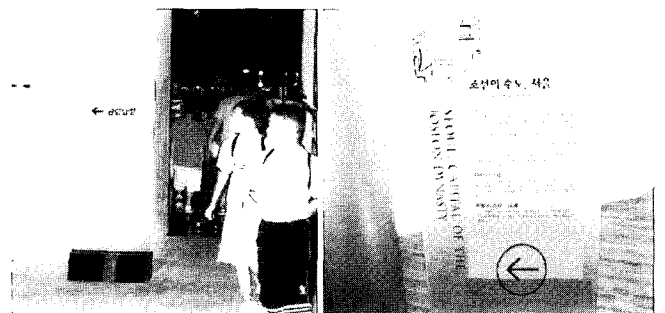


<그림 3> 2차 추적조사에 의한 관람동선의 이동패턴



<그림 4> ①부분 1차(좌)와 2차조사(우) 결과로 나타난 동선패턴

다만 <그림 4>의 ①부분의 경우 1차조사 결과에서는 기획동선과 비교적 일치되는 이동형상이 나타났으나 모든 관람방향안내판을 제거한 2차 조사에서는 이와 다른 동선패턴을 보이고 있어 ①부분에 설치된 관람방향안내판의 경우 다른 위치에 설치된 것들과 달리 방향표시가 아이라인의 범위에 있으며 관람자의 진행방향에 수직으로 면하고 있어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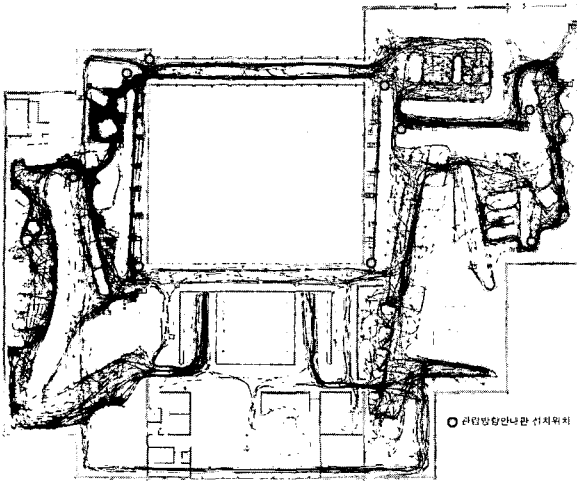


<사진 1> ①부분 관람방향안내판(좌)과 나머지 관람방향안내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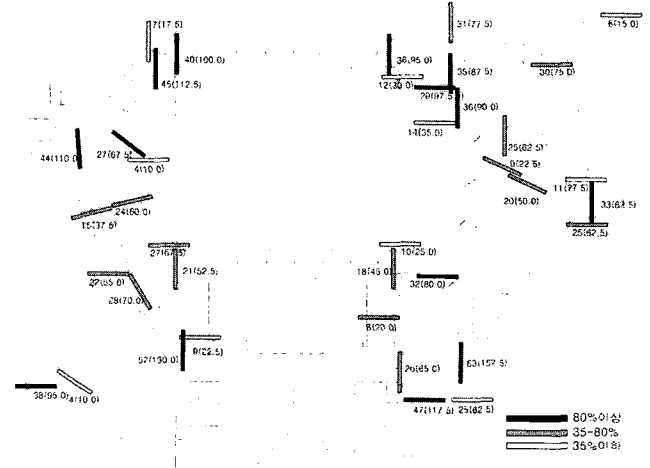
따라서 인지도가 높은 관람방향안내판을 공간에 일정한 방향성을 주는 요소로 가정하고 1,2차 조사에서 관람행동코드(■)로 많이 나타나는 지점에 ①부분의 관람방향안내판과 같은 형식으로 교체 설치하여 3차 동선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그림 5>와 같이 전시영역에 대한 관람이 1,2차

조사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으며 주요동선(main traffic line)이 상설전시공간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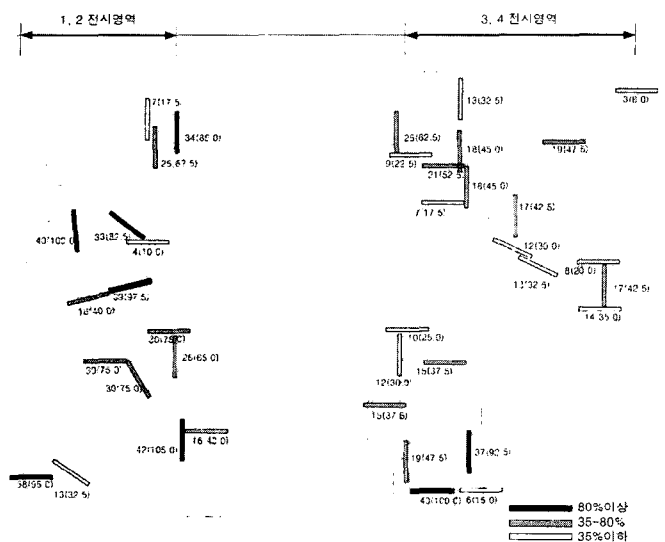
<그림 5> 3차 추적조사에 의한 관람동선의 이동패턴



<그림 7> 3차 조사결과에 의한 통행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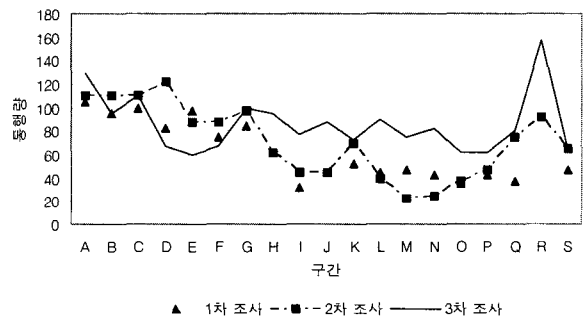
2.2. 관람행동코드에 의한 관람행태의 정량적 분석

1~3차의 동선추적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람객의 경로 선택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통행량을 산출하여 각 조사에서 나타나는 관람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1차 동선추적조사에서는 통행량이 80%이상인 부분이 제1, 2전시영역에 6곳 나타났으며 제3, 4전시영역에는 2곳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1, 2 전시영역에서 제3, 4전시영역으로 이동하는 브릿지에서 통행량이 감소하여 우측의 전시영역은 거의 관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1차 조사결과에 의한 통행량 분석

이에 반하여 3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 2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중반 이후 브릿지 부분(G~H)에서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여 제3, 4전시영역(H~S)에 관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80%이상인 부분이 양 전시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1, 2차 조사에서 설정한 관람방향안내판의 적절한 조정에 의해 관람행동 중 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¹²⁾



<그림 8> 통행량 측정 구간별 통행량 증감추이



<그림 9> 혼란을 느낄 때의 관람행동코드 분포 (좌: 1차조사, 우: 3차조사)

12) 이는 '가장 흥미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라는 설문조사결과에서도 1, 2차 조사에서는 '조선의 수도, 서울', '터치 뮤지엄', '잘 모르겠음'이 높게 나왔으나 3차 조사에서는 각 전시영역에 대한 선택비율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되었다.

한편 경로선택에 있어 혼란이 발생한 지점을 관람행동코드의 분포로 살펴본 결과 1차 조사에 비해 3차 조사에서는 그 부분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그림 8>에서와 같이 볼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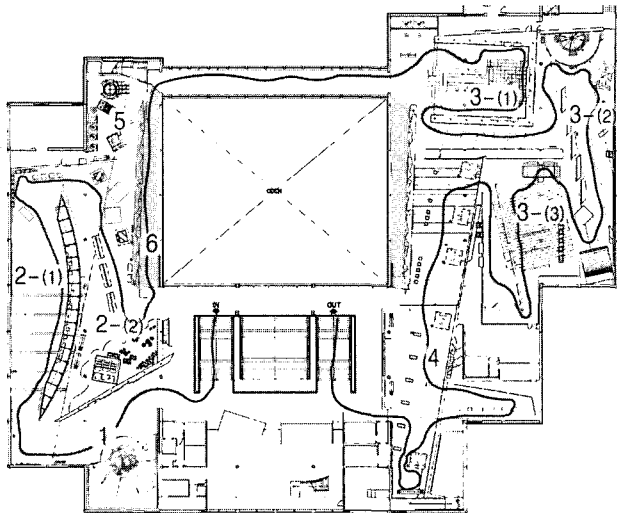


<그림 10> 지시정보를 볼 때의 관람행동코드 분포
(좌: 1차조사, 우: 3차조사)

또한 관람자가 지시정보(관람방향안내판)를 주시한 관람행동은 관람방향안내판을 조정된 3차 조사에서 많이 나타나 경로선택에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지시정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영역의 레이아웃과 관람동선의 패턴

3.1. 상설전시실의 전시체계와 동선패턴



*기호범례 — : 전시계획 당시의 기획의도 관람동선
1~4 : <표 1> 참조 5. 체험공간 6. 터치유지판

<그림 11>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공간구성 및 동선체계

<표 1>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영역의 구성과 전시내용의 흐름¹⁴⁾

전시영역	전시주제 및 내용	관람방향	일점순서
조선의 수도 서울 제 1 영역	①조선의 건국과 한양정도 ②조선 후기 서울의 모습 ③서울 사람들 ④서울경명	반시계	·
		·	·
		반시계	·
		·	·
서울사람들의 생활 제 2 영역	일상생활 2-(1) ①서울사람의 일생 ②의생활 ③식생활 ④주생활 ⑤서울사람의 하루	반시계	○
		·	·
		·	·
	경제생활 2-(2) ①시장 ②상품 ③상거래 ④경감산업	·	·
		·	·
		·	·
서울의 문화 제 3 영역	궁중문화 3-(1) ①궁궐 ②왕과 왕권 ③왕의 행차 ④국가 의례	·	·
		반시계	·
		반시계	·
		·	·
	학술문화 3-(2) ①천문 ②지리 ③학술 ④교육	·	·
		·	·
		반시계	·
		반시계	·
	예술문화 3-(3) ①공예 ②도자 ③회화 ④공연예술	·	·
		·	·
		반시계	·
		·	·
도시서울의 발달 제 4 영역	①선사시대의 서울 ②삼국~고려의 서울 ③조선의 서울 ④근대의 서울 ⑤현대의 서울	반시계	○
		반시계	○
		반시계	○
		반시계	○
		반시계	○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전시내용 및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는 여러 소주제가 모여 스토리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전시영역을 순차적으로 관람해야 전시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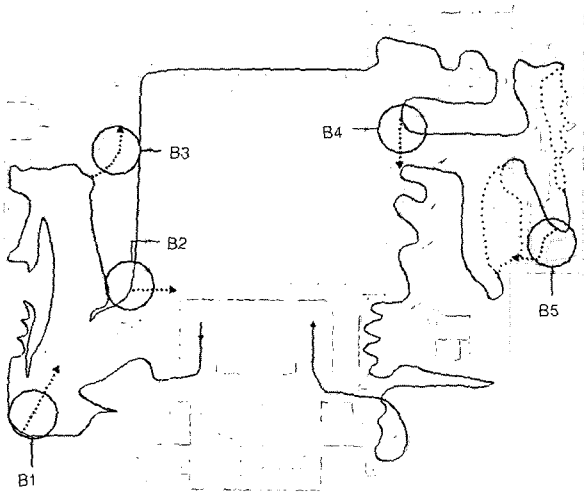
그러나 관람방향 안내판의 조정으로 각 전시영역의 관람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3차 조사의 결과에서도 전시 시나리오 구성의 전개를 고려하여 계획한 당시 기획의도상의 관람동선과는 달리 실제 관람객의 이동패턴에서는 과도한 Short-Cut이 발생하여 전시내용의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동경로상의 문제점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12>의 B1 부분과 같은 경우, 관람객이 제 1영역인 '조선의 수도 서울'을 관람한 후 제2영역으로 향할 시점에서 '서울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생로병사의 전시내용을 구성하고 그 후 의·식·주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2-(1)존으로 이동하지 않고 '서울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주제로 '서울사람의 하루'를 전시하고 있는 2-(2)존으로 이동하면 서울역사박물관이 의도하는 전시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획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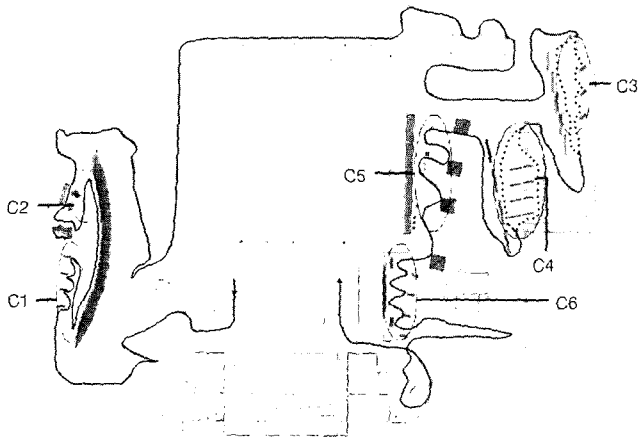
13) 다만 3차 조사결과 ⑥부분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시실내에서 공간인식이 어려워 정위판단(定位判斷)의 혼란에 따른 길찾기(wayfinding)가 이루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14) 관람방향에서 '반시계'는 전시물의 속성상 내용전개가 반시계의 관람방향이 요구되는 부분을, 일정순서에서 '○'는 전시내용의 흐름상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선과는 달리 실제로는 과도한 Short-Cut으로 인하여 전시내용의 구성과 그 흐름의 이해에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있는 부분은 다음 <그림 12>의 B1~B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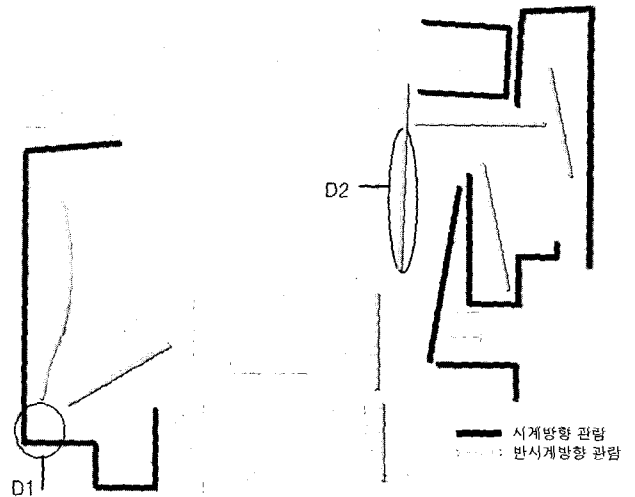


<그림 12> 전시내용에 따른 흐름과 Short-Cut 발생 부분



<그림 13> 전시내용의 흐름상 반복과 교차가 발생하는 부분

한편, 전시실내에서 관람객이 전시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경로를 표시하여 살펴본 결과, <그림 13>의 C1, C2와 같이 오픈된 전시공간에서 감상하였던 경로를 다시 이동하게 되어 관람순로가 반복되거나, C5, C6와 같이 전시물사이를 지그재그 식으로 오가게 되어 관람객 상호간에 서로 동선이 교차되는 관람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전시흐름에 따른 일련의 전시물 감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만 C3, C4에서는 전시흐름의 전개상 우측이나 좌측 어느 면을 관람하더라도 전시내용의 이해에 큰 지장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4> 감상방향과 관람의 이동방향이 불일치 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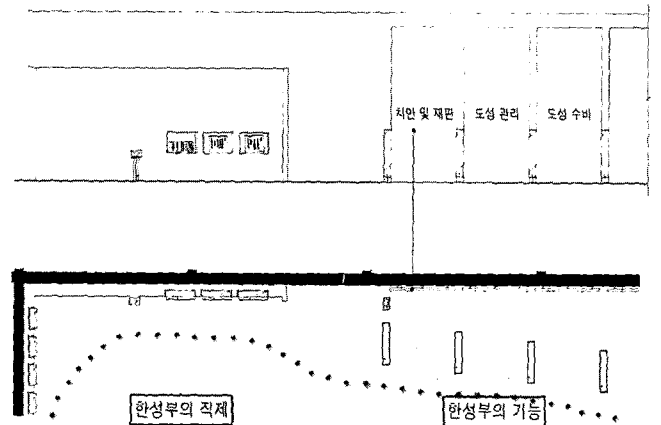
또한 전시물의 속성에 따른 감상방향과 전시내용의 흐름에 의한 이동방향이 있어서도 <그림 14>의 D1부분과 같이 실제로 전시물의 내용전개상 병풍이나 고서적류 등 반시계 방향으로의 감상이 요구되는 전시물이¹⁵⁾ 진열되어있으나 전시내용의 흐름에 의한 이동방향은 시계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호 불일치 되고 있었으며, D2부분 역시 도시서울의 발달과 관련된 고서적이 반시계 방향으로 벽면에 전시되어 있으나 시계방향으로 이를 해설하고 있는 설명패널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3.2. 전시영역별 전시방식 및 세부 동선체계

(1) 제1영역 : 조선의 수도, 서울

조선의 건국과 한양정도를 전시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도입부를 지나면 정면에 진열장을 횡렬로 배치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진열장 배열형식은 국내에서 최초로 복수 동선의 입체진열방식으로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를 심층관람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유물을 심도있게 장시간 관람하고자 하는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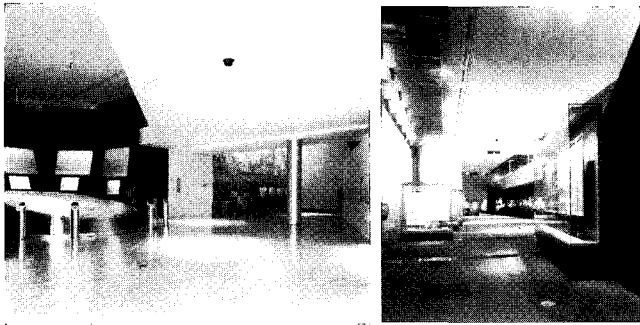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경영'존의 전시 입면도(위) 및 평면도(아래)

15)신증동국여지승람, 망우동지, 증보문헌비교, 경기감영도

객은 진열장 사이에 머무르며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주동선으로 이동하는 다른 관람객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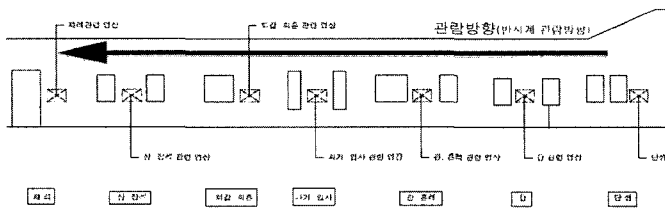
그리고 진열장 바닥과 연결된 무늬를 주동선상에 연장시켜 관람객의 시선을 진열장의 전시물로 끌어들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측벽에는 유물관련 슈퍼그래픽을 두어 진열장과 컬러패널에 압도됨이 없이 입체적인 관람과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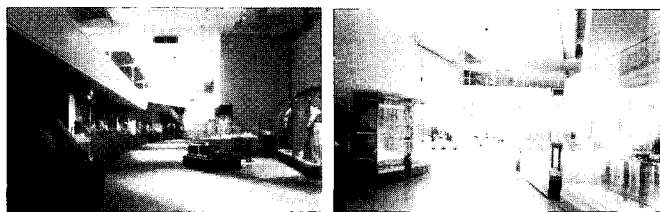
<사진 2> '조선의 건국과 한양정도' 존 전경 <사진 3> '서울의 경영' 존 전경

(2) 제2영역 : 서울사람들의 생활

'서울사람들의 일생' 존은 돌잔치, 혼인, 과거급제, 혼례 은퇴까지를 묘사한 병풍 '평생도'를 반시계 방향의 관람으로 시작하여 병풍의 각 폭 별 내용을 긴 블랙 스크린 벽에 전시된 관계유물과 함께 동영상을 동시에 감상하며 관람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림 16> '서울사람의 일생' 존 전시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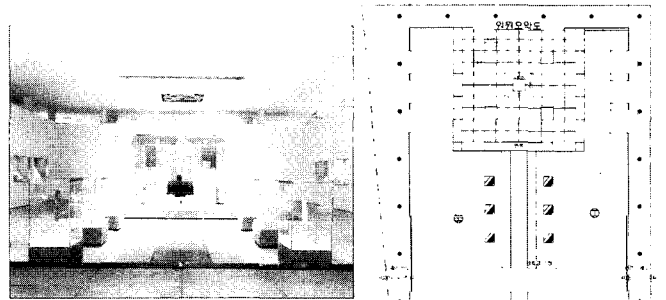


<사진 4> '서울사람의 일상생활' <사진 5> '서울사람의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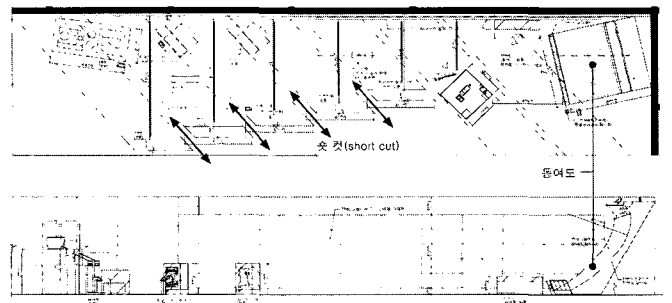
(3) 제3영역 : 서울의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제3영역의 '궁중문화'존의 경우 현재 경희궁터 내에 남아 있는 서궐도(西闕圖)와 발골도면을 기초로 지형과 도면을 도입하여 경희궁터 내의 궁중문화 관계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의 배경으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병풍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를 두어 궁궐의 정전내부가

연상되도록 하였으며, 배면의 다섯 개 진열장에는 왕이 사용하던 소형 유물들을 광섬유조명장치를 이용하여 국부조사(局部照射)함으로써 전시물의 극적인 효과를 높였다. 진열장의 디자인 또한 유물의 감상에 저해되지 않도록 미니멀리스트적 하이테크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측벽면에는 패널대신 직접 낮은 톤의 슈퍼그래픽을 도안하여 시각적 거름을 최소화하며 전시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 6> '궁중문화'존 전경 <그림 17> '궁중문화'존 전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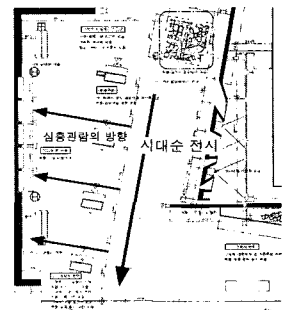


<그림 18> '학술문화'존 전시 평면도(위) 및 입면도(아래)

한편 전시공간구조상 깊이가 깊은 '학술문화'존은 관람객들이 선택적으로 숏컷(short cut)할 수 있도록 지엽적 동선체계를 비교적 세밀히 구성하였으며 최종전시물인 '동여도'를 향하여 전시실의 폭이 좁아지는 역투시법을 도입하였다.

(4) 제4영역 : 도시서울의 발달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내용 흐름상 에필로그 격인 제4영역 '도시서울의 발달'존은 테마전시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역사의 흐름을 도시의 생성으로부터 현대·미래 도시까지를 도시사(都市史)관점에서 총정리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전시영역이다.



<그림 19> '근대의 서울' 존

다만 제4영역에서 전시의 흐름은 시대순 전시인 것에 반하여 각 시대에 속하는 전시물과 심층관람의 방향은 관람객의 진행방향 우측에 면하고 있어 내용 전개에 따른 감상경로의 방향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종합고찰 및 대안검토

본 연구는 관람객의 움직임이야말로 그들이 습득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결정짓는다는 배경하에 다양한 전시방식과 전시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을 대상으로 관람동선의 개선모색 차원에서 관람행태와 전시체계를 상세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전시내용과 그에 따른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4개 영역으로 각 영역의 주제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스토리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동선체계는 자유선택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방향안내판을 이용, 감상방향을 유도하고는 있으나 부적절한 위치와 인지도가 낮은 구성체계로 인하여 관람분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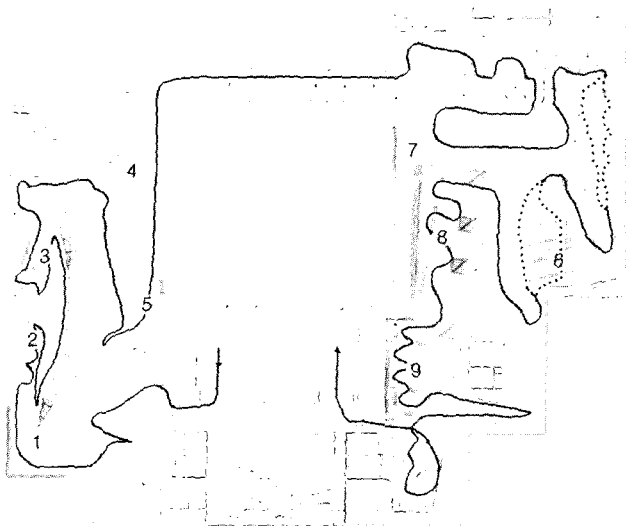
둘째, 전시공간의 구성과 기획동선과는 달리 실제관람객의 관람행태를 살펴본 결과 전시영역간에 과도한 Short Cut이 발생하여 전시내용의 구성과 그 전개흐름의 이해에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전시내용의 흐름상 감상하였던 경로를 다시 이동하거나, 전시물사이를 지그재그로 오가게 되어 동선의 교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전시내용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전시물 감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전시물 속성에 따른 감상방향과 전시내용의 흐름에 의해 기획한 동선체계상의 이동방향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작품을 해설하고 있는 설명패널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제4영역 '도시서울의 발달'존의 전시구성 및 레이아웃에서 관람객의 이동방향은 시대순, 연대기순 인 것에 비하여 심층관람의 방향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내용 및 흐름과 전시실 형태, 전시레이아웃과 실제 관람동선과의 차이로 인한 동선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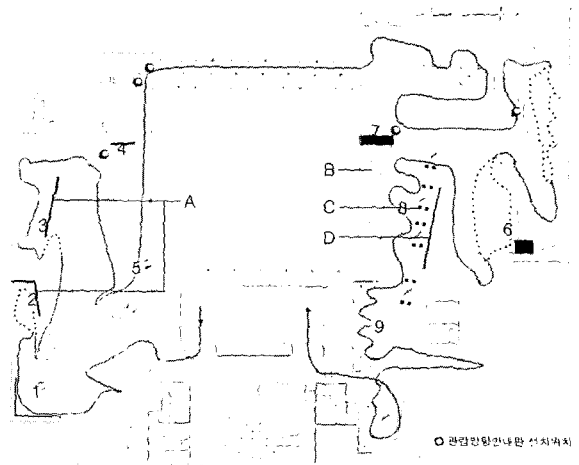


<그림 20> 관람동선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있는 부분을 종합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0>과 같다.

즉, 1 부분의 경우 기획동선과 달리 실제로는 과도한 Short Cut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시물의 감상방향과 관람객의 이동방향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2, 3 부분의 경우 단위전시실내 관람순로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4, 5, 6, 7 부분은 과도한 Short Cut의 발생하고 있다. 또한 8, 9 부분의 경우 관람방향과 심층관람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전시체계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변경,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1~3차의 동선추적조사 중 관람방향안내판의 조정에 의해 관람동선이 개선된 3차 동선추적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시내용의 흐름과 전시물 속성에 따른 관람방향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공간구성 및 전시레이아웃 대안

1부분의 Short Cut의 방지를 위해 인지도를 높인 관람방향안내판을 관람객의 진행방향에 수직으로 면하도록 설치하며, 고서적의 유물은 3D 그래픽으로 터치스크린에서 체험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벽면에는 해설 및 슈퍼그래픽으로 전시한다. 2, 3부분은 A와 같은 전시벽면을 만들어 단위공간을 포켓형식으로 하여 자유선택관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4, 5, 6, 7 부분의 Short Cut 방지를 위해 관람방향 안내판 및 모형전시, 파티션으로 구획한다.

8부분의 경우 반시계 감상방향의 고서적 전시물의 해설은 관람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심층관람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형의 전시물(C)을 이동시켜 대소형 전시물을 동시에 감상하며 시계방향의 벽면에 설명패널(D)을 두어 감상에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9부분 역시 반시계 방향의 벽면에 터치스크린과 같은 심층관람 영역을 구성하고 유물의 설명은 쇼케이스의 내부 및 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역사박물관의 관람동선개선을 위한 제안적 연구로 공간구성 및 관람행태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

으나 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관람행동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박물관별 전시방식의 차이에 따른 관람행동에 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람자 유형의 분류, 관람밀도, 관람시간 등의 인자와 더불어 전시존별 다양한 공간변수와의 분석에 의한 공간적 요인에 대하여 연구의 범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hoi, Yoon Kyung. The Morphology of Exploration and Encounter in Museum Layout. Space Syntax. Proceedings of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College London, 1997.
2. Peponis, J., Zimring, C. & Choi, Y.k. Finding the building in wayfinding. Environment and Behavior, 1990
3. Joegje Glusberg, Cairo International Exhibition, AD Profile, 1984
4. Hillier and Hanson(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 Press
5. Levin, M.D. The Modern Museum, Temple or Showroom, Jerusalem: Dvir Publishing House, 1983.
6. Montaner. J & Oliveras. J, The Museum of the Last Generation, London: Academy Editions, 1986.
7. Jordanova. L, Objects of Knowledg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Museums, Vergo. P.(Ed), The New Museology, London, Reaktion Books, 1989.
8. Bill Hillier,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9. 임채진·황미영, 전시디자인의 공간분화와 Remodeling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호, 1999.
10. 임채진·이규환, 다변량해석에 의한 상설전시공간의 속성과악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호, 2000.
11. 최윤경, 박물관 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3호, 2001.
12. 김용승, 박물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11호, 1995.
13. 임채진·정성욱, 미술관 관람동선 형성의 공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8권 2호, 1998.
14. 임채진 외, 박물관 공간구조와 동선패턴에 관한 연구, 박물관건축학회 논문집 제3호, 2000. 4.
15. 홍수미 외, 1980년대 이후 뮤지엄 전시공간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제4호, 2001. 2.
16.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 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1997.
17. 박길룡 외,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8.
18. 임채진 외, 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설계 검토 및 제안연구, 국립중앙박물관, 2001.

<접수 : 2002. 12. 31>